

총영사가 간사이지역 교육관계자분들께 드리는 편지(첫번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카총영사 오태규입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매월 첫째 주에 총영사관 관할 안의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께 SNS망(LINE)을 통해 짧은 편지를 띄우려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을 보충하려는 뜻에서 착상을 했지만, 우리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통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민족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고 느끼고 계시듯이, 코로나 사태는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면형의 기존 일상생활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형의 방식이 많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학교, 한글학교에서도 이미 온라인수업을 실험적으로 실시해 보아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낫설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 장점을 최대화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의 월간 메시지가 교육관계자분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간 연결되지 못했던 구성원들이 SNS망에 초대되고 연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민족학교, 민족학급, 한글학교, 세종학당 관계자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한국어 채택교 교사, 대학 내 한국학(한국어)연구자들까지 수신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론을 접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2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1파에 비해 제2파가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익숙해지면서 심리적으로 이완되어 있는 점, △1파의 대응과정에서 사용가능한 정책수단(휴업보상 재정 지원 등)의 소진과 경제위기 우려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둔화된 점을 고려할 때, 2파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1파를 훨씬 능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장기간의 임시휴교로 수업시수를 채우기 위해 수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장은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이 신발 끈을 새로 고쳐 맬 때입니다. 마스크 착용, 소독, 검온(檢溫), 환기 등 기본적인 위생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비상연락망,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도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교육 방식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3개 민족학교가 4~5월 중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것과 교토한국교육원이 전일본 한국어변론대회(7.4)를 동영상 심사로 개최한 것은 교육 분야에서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교육활동 계획은 대면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대면·비대면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선택·수행하는 체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대비하여 대면·비대면 수업의 병행, 교육기관간 온라인 콘텐츠의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영사관이 보유한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총영사관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발신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리고 싶은 행사나 정보가 있으면, 우리 총영사관에 게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또 한 번 세계가 그물망을 통과하는 장애물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물망을 통과한다면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수 있는 때입니다. 간사이지역의 우리 교육관계자분들도 코로나 사태를 창의적으로 극복해 민족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8.5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오태규 올림.